

부산에서 해외까지 포교의 꽃이 '활짝'

7월 25일~26일 부산불교문화원 개원

20년 동안 어린이 포교를 위해 힘써온 김광호 교수(동국대 경캠프 불교심리학과)가 부산 금정구에 부산불교문화원(원장 김광호)을 개원하고 비영리단체 (사)블룸을 설립 국내의 포교에 나선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법회와 불교대학 등을 통해 불교와 전통문화의 화를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부산불교문화원은 7월 25일~26일 '보리수 초등불교학교 2015년 하계캠프'를 열고 개원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캠프에 참가한 보리수 초등불교학교 20여명의 학생들이 직접 개막 테이프를 커팅해 논 길을 모았다.

김광호 원장은 "내년 초창 없이 불필요한 격식을 배제하고 오직 어린이만을 위한 개원 행사를 진행해 '법당의 주인은 어린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자 했다. 20년 동안 어린이를 포교하며 익힌 노하우와 전문화된 인력으로 지역에 회향할 것"이라며 개원의 의미를 전했다.

이후 거울 만들기 명상, 미술 심리검사, 108배 등으로 본격적인 캠프가 진행되었다. 윤성진(두살초6) 학생은 "개원을 알리는 커팅식에 함께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캠프 기간 동안 마음껏 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특히 아침 예배 시간에 부처님께 향을 올리며 기도도 하니 정말 행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민재 학생(신양초5)은 "친구들과 다 같이 옥상에 서 술래잡기도 하고 멀리 뛰기도 하면서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이곳에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불교문화원 (사)블룸을 개설 '블룸 청소년 힐링센터', '태영 장학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활짝 피어나다'는 의미를 지닌 블룸은 이름 그대로 상담과 힐링을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활짝 피어나게 해

변화를 함께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블룸은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에 나선다. 이에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군속훈련소 관련 피해자 추모 및 메시지 전하기' 행사를 8월 1일~15일 매주 토.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민공원 내 흔적공원에서 연다. 임시군속훈련소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연합군 포로를 감시했던 포로 감시원들의 훈련소다. 김광호 원장은 "역사 자료를 보면 부산 시민공원 내 흔적공원이 당시 임시군속훈련소였다. 전쟁 후에도 전범으로 징역형을 받고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

- 하계 캠프 개최하며 개원식 진행
- (사)블룸 설립, 사회 회향 목표
- 가족 연계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캄보디아 등에 해외자비사업도

줄 예정이다. '블룸 청소년 힐링 센터'는 교육 및 문화 사업과 상담에 중점을 둔다. 특히 상담 대상은 청소년과 아동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광호 원장은 "상담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내담자는 물론 가족들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모두가 긍정적



부산불교문화원은 7월 25일~26일 '보리수 초등불교학교 2015년 하계캠프'를 열고 개원을 알렸다. 사진은 개원식 후 기념사진.

해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 바친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갖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밖에도 태영장학회를 통해 국내장학 사업을 진행해오던 김광호 원장은 해외 자비 나눔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김광호 원장은 "아이들에게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견학 위주였던 해외 탐방에서 눈을 돌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우물 사업 및 식수 제공, 티베트 난민학교 지원 등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사하구불교聯 영정사진 전달식

7월 27일 60여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는 7월 27일 사하구불교무료급식소에서 60여명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하구불교연합회장 हे우 스님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헤우 스님은 "사하구불교연합회는 지난 5월 무료급식소를 찾은 지역 어르신들 가운데 영정사진 촬영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촬영을 진행했다"며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변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즈음에야 급히 자식들이 사진을 준비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 이렇게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게 됐다"고 전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을 전달했다.

한편 사하구불교연합회는 20년 동안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하성미 기자

청도 운문사 '감성 특' 여름불교학교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7월 25일 운문사 경내 만세루에서 제36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감성 특! 특! 감성이야 누구나?'란 주제로 1박 2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초등학교 3~6학년 1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입식식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운문사승가대학원장),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승가대학감 운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학장 일진 스님은 "24시간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불교학교를 통해 평화롭고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여섯 가지 감각의 대문을 통해 이 세상이 존재함을 알고, 순간 순간 일어나는 마음과 감각을 관찰하는 법을 깊이 깨달아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게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원했다."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벗어나 명상 프로그램으로 육감 즉 현재 일어나는 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어린이들의 삶의 목표나 사상을 건전하게 인도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이날은 운문사가 대 학인스님들이 '광명진언' 공연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7월 25일 운문사 경내 만세루에서 제36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감성 특! 특! 감성이야 누구나?'란 주제로 1박 2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초등학교 3~6학년 1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시-부불 '聯 '燈공모전' 상생의 길 모색 계기

불교계의 자문 요청 등 협력 약속... 내년 공동주최 예정

'제 11회 부산불꽃축제'의 부대행사인 '등(燈)공모전' 개최에 대해 부산시와 불교계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부산불교연합회는 7월 24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10월 개최될 '등(燈)공모전'에 대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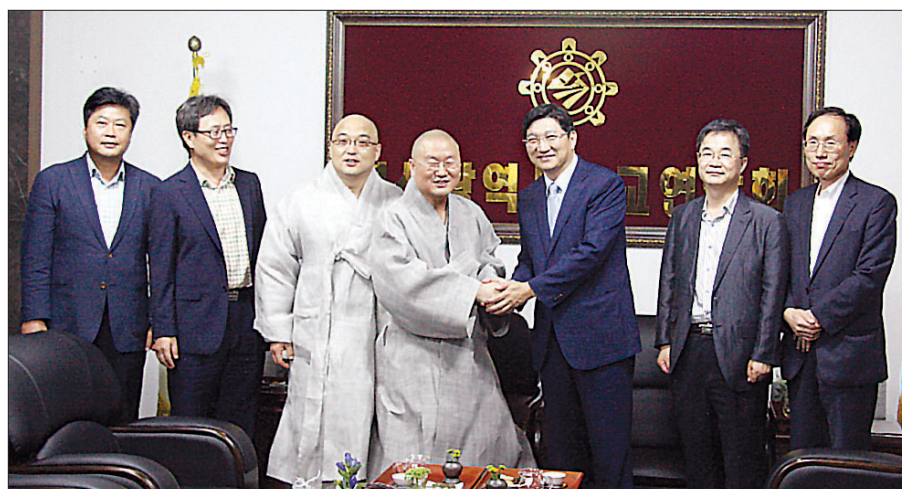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 사무 부총장 동암 스님, 김규욱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갑준 부산시청 불자회장, 부산 부산불교연합회 박용하 사무국장, 주재형 사업국장 및 부산시 문화예술과 이근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상품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등공모전'을 진행중에 있다. '등화와 연화의

조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산 수영강변 근처에 특별전시대를 마련하고 10월 19일~31일 선정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불교연합회는 공문을 통해 "20년전부터 창작등공모전, 등만들기 강습회 등을 통해서 그간의 전통을 축적해 놓았는데 상의도 없이 이렇게 부산시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등공모전을 따로 개최하는 것은 부산불교연합회의 그간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등공모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는 부산불교연합회에 등공모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은 물론 내년에는 공동주최까지 행사를 발전시키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첫 회의의 자리여서 등 축제와 관련해 구체적 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부산불교연합회는 7월 24일 회의를 갖고 '등공모전'에 대해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용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함께 의논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뜻이 모아진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전했다.

부산시문화관광축제조직위는 "송상현 광장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연등축제는 놀

라운 성과이며 부산 시민을 위해 훌륭한 문화를 제시하고 보여준 불교계에 감사드린다"며 "부산시의 새로운 사업으로 등공모전을 진행하니 많은 협력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하성미 기자

부산생명나눔, 생명존중 강좌 열어

7월 28일~29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서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자살 예방,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는 강의가 개최됐다.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8일~29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제3회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열린 강좌에는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강의는 △한국인재육성개발원 조원규 원장의 '행복한 삶이란' 강의로 시작해 이자목 스님(경주동국대학교 불교상담학과 교수) '지금 여기, 행복

한 삶을 위한 치유명상' △홍순하 행복명상상담센터 상담실장 '명상, 나 자신을 돌봐요' △박동범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 '생명존중사상-장기기증과 자살예방방안' △생명 존중 서약서 작성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생명나눔 부분부장자인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설하셨다"며 "자신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 있는 것이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며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품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장증상,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증후군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허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품온벨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소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보상품(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들에게 **心**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 품 설 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cm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꽂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

게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들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들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품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장증상,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증후군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허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품온벨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소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보상품(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들에게 **心**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 품 설 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cm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꽂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

게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들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들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